

# 폭우·폭염에 채소값 '깡충'

### 배추 1만 5300원 한달전보다 43%↑...깻잎 2만7800원 49.5% 급증 고랭지 배추 재배면적 감소에 여름 배추 생산량 평년보다 9.1% 줄어

광주·전남지역 채소 값이 크게 올랐다. 폭염 등의 영향에 휴가철 수요까지 몰리면서 배추 등 엽채류(잎을 먹는 채소류) 도매가는 한 달 만에 50% 가까이 뛰었다. 기후 변화로 고랭지 배추 면적이 줄어들고 있어 배추값은 더 오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광주지역 배추(상품·10kg) 도매가는 지난 2일 기준 1만 5300원으로, 한 달 전(1만 700원) 보다 4600원(43%) 올랐다.

한 달 이상 이어진 장맛비에 폭염이 이어지면서 부진한 작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장마가 시작된 지난 6월 평균 기온은 22.7도로 평년보다 1.3도 높아 지난 197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올해 장마철 누적 강수량(472mm), 강수일수(18.1일)도 각각 평년(356.7mm·14.8일)보다 많았다.

일조량이 줄고 병충해가 늘어나는 등 생육 환경

이 좋지 않다보니 배추 등 엽채류 외에도 채소가격이 전반적으로 모두 상승했다는 것이다.

광주 깻잎(상품·2kg) 도매가는 지난 2일 기준 2만 7800원으로 1달 전(1만 8600원)보다 9200원(49.5%) 뛰었다.

브로콜리(33.3% ↑), 시금치(47.8% ↑), 적상추(92.6% ↑), 풋고추(37.1% ↑) 등이 모두 올랐다.

대부분의 채소 값이 한 달 전보다 33~92%까지 치솟다보니 마트로 장보러 갔다가 채소를 집어들기가 부담스러운 형편이다.

배추의 경우 고랭지 재배면적 등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올 여름배추 재배면적은 4914ha로 전년(5242ha) 대비 6.2% 감소했다. 올해 여름배추 예상 생산량은 33만 9545 t으로 전년(36만 5961 t)과 평년(37만 3644 t)에 비해 각각 7.2%,

<b>배추 (10kg)</b> 1만5300원 ↑43%	<b>깻잎 (2kg)</b> 2만7800원 ↑49.5%
<b>브로콜리 (8kg)</b> 4만6000원 ↑33.3%	<b>풋고추 (10kg)</b> 6만5300원 ↑47.8%
<b>적상추 (4kg)</b> 4만9300원 ↑92.6%	<b>양배추 (8kg)</b> 7630원 ↑12.9%

\*8월2일 기준 전월 대비 상승률 (aT KAMIS 제공)

9.1% 감소했다. 향후 폭염 및 태풍 등 기후 상황에 따라 채소값이 더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면서 정부는 여름철 채소 수급 안정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관세를 낮춰 수입 물량을 늘리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근본적 대책 마련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전남도, 임대농지 원스톱 등록 서비스 호응

### 전국 최초 시행...농관원·농어촌공사 협업 으뜸 사례 주목

전남도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 본부와 함께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2024년 임대농지, 원스톱 등록 서비스'가 협업 으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농업인이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농지법 적용에 따라 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한 필지를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3개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전남도는 농관원 전남지원,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와 '임대농지 원스톱 등록 서비스' 업무협약을 하고, 기관 간 복잡한 임대 농지 등록 절차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안내로 2만2000부를 제작해 배포했다.

농업인이 농어촌공사에서 임대계약을 한 필지는 별도의 서류 제출과 방문절차 없이 전화 한 통으로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직불금 신청

을 하도록 운영했다. 그 결과 전년보다 농지대장 서류 발급은 6만 건(25%) 감소하고 농관원의 방문 민원도 8천 명(13%) 줄었다. 농업인 만족도도 7.4점, 담당자 7.8점으로 평의성과 전문성이 높아져 지속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임대농지의 간편등록을 위해 지속해서 협의체를 확대 운영해 농업인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공익직불금액 전국 1위, 농지면적 전국 1위를 자랑하는 농도 전남이 공익직불 업무를 선도적으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방도혁 농관원 전남지원장은 "앞으로도 농업경영체 등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 간 협업을 통한 각종 행정정보 연계를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 시·군별 수출 특화품 직불금 지급

### 도, 올해 37억 5000만원 지원 예정

전남도가 올해부터 22개 시·군별 수출 특화품에 직불금을 지급한다.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은 수출 유망 품목을 발굴하고 생산자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시·군별로 농림·축·수산물, 가공식품 중 지역 실정에 맞는 수출 특화품목을 선정하고 해당 품목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역 생산 농림·축·수산물을 생산 및 제조·가공한 품목이나 품질 관리, 수출 확대 가능성, 수출 기여도, 고용 창출·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해 시장·군수가 선정한다.

직불금은 농·수산물 수출 특화품목을 생산하는 생산자, 생산자단체와 수출 특화품목을 수출하는 수출업체에게 각각 지원한다.

다만,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확정되기 전, 농어업 경영체 등록이 취소·말소된 자, 휴·폐업 중인 자, 대기금 및 중견기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직불금 지급 단가는 수출 물량 1kg당 100원으로 올해 37억 5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지역 특성에 맞는 수출 특화품목을 집중 육성, 수출 기반을 확대하고 글로벌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한편, 해외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여 생산자, 생산자단체, 수출업체 간 동반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 농수산물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사업을 통해 전남 농수산물식품의 수출 확대와 글로벌시장 진출을 견인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전남도, 유기농 벼짚 환원사업 '본격화'

### 인증농지 대상 16일까지 접수

### ha당 25만원 보조금 지원

전남도가 26억여원(도비 5억 2000만원, 시·군비 20억 8000만원)을 들여 '유기농 벼짚 환원사업'을 지원한다.

유기농 벼짚 환원 사업은 벼짚을 토양으로 되돌려 유기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농업부산물을 자원화해 토양환경을 지키고 지력을 높이는 친환경 농업실천 방법이다.

유기농 인증농지의 0.1ha에서 나오는 벼짚을 환원하면 유기물 174kg, 요소 9.3kg, 규산 252kg 등 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토양유기물 함량 증가시 벼 생산성이 최대 20% 증가한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중 유기농 벼 인증을 받은 농지가 지원 대상으로, 수확 뒤 벼짚을 절단

해 환원하면 ha당 25만 원의 보조금을 농가에 지원한다. 조사료 등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

희망 농가는 오는 16일까지 친환경인증서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벼짚 환원 예정인 농지 사진을 첨부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유기농 벼 인증 농가의 농업경영비를 줄여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하고, 벼 재배로 인한 메탄 배출량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수협중앙회 광주공판장은 개장 20주년을 맞아 8월1일부터 9월8일까지 서부농수산물 도매시장 수산물동에서 경품행사를 진행한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 '개장 20주년' 수협 광주공판장, 고객 잡기 경품 행사

### 9월 8일까지 진행

수협중앙회 광주공판장이 여름철 고객 발걸음을 붙잡기 위한 경품 행사를 진행한다.

수협중앙회 광주공판장은 개장 20주년을 맞아 오는 9월 8일까지 광주시 서구 매월동 서부농수산

물도매시장 수산물동에서 경품행사(500만원 상당)를 진행한다.

수산물동을 방문해 5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TV(75인치·200만원·1명), 무선청소기(80만원·1명), 수산물교환권(20만원·5명), 수산물교환권(5만원·20명) 등을

제공한다. 경품 추첨은 행사 마지막날인 9월 8일 실시한다.

수협중앙회 광주공판장 관계자는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전통시장이 경품행사를 계기로 활력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아느냐/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